

광주 도심 빈 상가 점령한 전단지 ‘미관 저해’

불법 광고·테이프 자국 등 난장판
충장로·금남로 등지 흉물로 전락
“손님 기피” 자영업자 강한 ‘불만’
사유 건물 탓 단속·제거에 한계

광주광역시의 대표 상가로 불리는 충장로·금남로 일대, 여전히 광주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계속 빈 상가들이 유지돼 불법 전단지가 붙어있거나 붙였다가 떼 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테이프 자국들로 가득하다. 점차 도심 흉물로 자리 잡아 미관을 해치고 방치되자 이제는 당연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찾은 광주 동구 충장로 상가, 최근 빈 상가들이 고스란히 방치되더니 그곳에 붙인 전단지와 떼고 남은 테이프 조각과 끈끈이들로 인해 건물 외부가 이른바 ‘난장판’ 이 된 모습이었다.

길을 가던 이은길(86)씨는 전단지와 그 흔적들로 더럽혀진 빈 상가들을 보며 영 아니라는 듯 고개를 휘저었다.

이 씨는 “이 앞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매

일 똑같이 붙어있다. 상가 입구에서부터 이게 뭐냐, 흉물스럽다”며 “몇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 확실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불과 몇년 전 까지만해도 여러 다양한 가게들이 놓여있던 골목길이지만 최근 충장로 도심 공심률이 20%대를 유지해 빈 건물이 많이 생기고 그곳에 불법 전단지 부착과 그 흔적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특히 단순히 가게를 내놓기 위한 임대 전단지가 아닌 보기에 불편한 ‘놀면서 편하게 일할 사람’, ‘카드할부 현금’ 등 유해한 내용이 적힌 불법 전단지도 가득했다.

공실 건물에 붙여진 불법 전단지들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광주 곳곳 이뤄지고 있다. 같은 날 찾은 북구 용봉동, 이곳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붙여진 전단지와 그 흔적들로 가득한 상황이었다.

정지우(29)씨도 “예전에는 깨끗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지저분한 건물들이 자주 보이는 것 같다”며 “이제는 이런 흔적들이 있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보기



12일 찾은 광주 동구 충장로의 한 빈 상가, 불법 전단지를 붙였다 떼 자국들로 건물 외벽이 더럽혀진 모습이다.

불쾌할 정도로 심한 장소도 몇 군데 있어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몇년째 빈상가에 전단지들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 뿐 아닌 자영업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가 마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

자영업을 하는 조모(46)씨는 “주변에 건물들이 깨끗해야 손님들이 많이 올 텐데 벽에 붙은 전단지들만 가득하니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고 발길을 피할까 걱정된다”며 “미관을 해치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직접 처리하고 있지만 계속 신경쓸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단속에 더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광주 일선 자치구는 인력 부족과 사유 건물이라는 이유로 불법 전단지 제거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광주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테이프 자국 등까지 완벽하게 청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단속을 통해 불법 전단지들을 처리해도 엄연히 사유 건물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민원이 들어 올 때 마다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려 노력 중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불법 및 각종 전단지 도배에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형집 광주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시재생 관점에서 공실률과 관련해 임대 전단지뿐만 아니라 기타 불법 전단지 등 각종 전단지가 도배돼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빈 집에 대해서는 정책이 있지만 빈 점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떠한 대책이 없는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글·사진=이정준 기자

광주 학생들, 18일 캐나다서 5·18 알린다

시교육청 국제교류 프로그램
‘책으로 세계로’ 10박 12일 일정
빛고을독서마라톤 우수자 20명

광주 학생들이 5·18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오는 18일 캐나다에서 5·18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12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기념행사는 12일~23일 10박12일 일정으로 마련한 ‘책으로 세계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책으로 세계로’ 프로그램은 광주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독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제화 프로그램이다.

이번 국제 교류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20명으로, 지난 빛고을 독서 마라톤 활동 우수자 중에 학교별 추천을 받아 고등학교



12일 광주 학생들이 ‘책으로 세계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로 향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제공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별됐다. 탐방 중 캐나다에 있을 18일, 제45주년 5·18 민주화 운동을 맞아 한인학생회(UTKSA)와 함께 토론토 네이슨필립스광장에서 5·18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 학생들은 ‘위대한 유산: 5·18 그날의 기록과 진실’ 사진전을 선보이고, 토론토의 타임스퀘어로 불리는 던다스광장에서 5·18 플래시몹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정유철 기자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5·18민주화운동 당시 기동타격대로 활동했던 대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광주북부경찰과 (사)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동지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0시45분께 용봉동 한 빌라에서 60대 남성 A씨가 숨졌다.

A씨와 연력이 되지 않아 빌라를 방문한 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1980년 5월 27일 5·18 기동타

격대 7조 대원으로 확인됐다.

당시 고등학교에 다니던 A씨는 옛 전남도청을 지키다 자수를 하러 나오던 중 계엄군이 쏜 총에 의해 오른손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계엄군에 붙잡혀 약 5개월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A씨가 평소 앓던 질병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 중이다.

정승우 기자

전남 보성서 가로수 가지 치던 작업자 동반 추락

지면서 약 5m 높이

전남 보성에서 가로수 가지치기에 투입된 고령 노동자들이 추락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보성소방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2분께 전라남도 보성군 노동면의 한 도

로에서 고소작업차에 올라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던 A(65)씨와 B(70)씨가 5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팔을 크게 다치고 B씨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성·양중수 기자



광주 서구 MZ공무원, 대선 투표독려

투표참여 독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과 MZ 공무원(1990년대 출생)들이 12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후 민주의 문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광주 서구 제공

‘펭귄마을 소녀상’ 주인공, 이옥선 할머니 별세… 향년 97세

봉선동 소녀상 앞에서 추모 행사
日 ‘위안부’ 피해자 6명으로 줄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사진) 할머니가 건강악화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97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2일 오후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펭귄마을에 위치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이옥선 할머니 추모시간을 가졌다. 흰 국화 대신 이 할머니의 평안한 안식을 갖길 바라는 의미에서 수수하면서 따뜻한 색깔의 꽃을 준비해 헌화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1927년 부산에서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이 할머니가 15세 시절인 1942년 7월,



일본군에 의해 중국으로 끌려가 3년간 폭행, 성착취 등의 갖은 고초를 겪었다.

할머니는 생전 한 증언에서 “당시 일본군에게 반항할 때마다 온갖 폭행을 당하면서 몸에 새겨진 칼자국들을 볼 때마다 서러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1945년 해방이 된 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중국에 머물던 할머니는 2000년 6월 고국으로 돌아왔다.

지난 2001년 이 할머니는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됐다. 수요시위, 해외증언 등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 할머니는 2021년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판결의 당사자이며 광주 남구 평화의 소녀상 모델이다.

지난 11일 이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240명의 피해자 가운데 6명밖에 남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아직까지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국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를 회복한다는 구실로 일제 피해자들을 오히려 일본 앞에 무릎 꿇리는 역사 반역을 자행했다”며 “이제는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가 6명밖에 남지 않았다. 한평생 일본 정부의 사죄를 듣고자 했던 이 할머니의 못다 한 외침이 사후에도 반드시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승우 기자

여수 현직경찰, 상관에 금품 제공 의혹

전라남도 여수경찰 소속현직경찰관이 인사 청탁을 위해 상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이 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지난해 말 근무성적 평정 과

정에서 상관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이 나왔다.

A 경위는 기대에 못 미치는 등급을 받았으며 승진도 무산됐다.

경찰은 금품을 줬는데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A 경위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A 경위는 금품 제공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경찰은감찰 부서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정준 기자